

## 주일예배

SUNDAY WORSHIP

- 1부 : 신앙의 유산을 따라 드리는 전통 예배  
2부 : 친양의 향기를 드리는 디아코니아 예배  
3부 :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풍성한 예배

1부. 7:30 2부. 9:00 3부. 11:00 4부. 젊은이예배 13:00

예배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인도자
개회찬송			찬양대	
1부	2부	3부		
※찬송	29장	경배와 찬양 (꽃들도 외곡)	사도신경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65.(시편149편)	
※성시교독	65.(시편149편)		65.(시편149편)	
기도	한정호 장로	윤창훈 장로	박성춘 장로	맡은이
찬송	546장		546장	다같이
봉헌				다같이
교회소식				인도자
성경봉독	느헤미야 2:17, 8:1-6			인도자
찬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arr 김광호	임마누엘찬양대		
	주 나와 함께 하소서 L. Larson	여호수아찬양대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 김기영	시온찬양대		
말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김한호 목사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같이		
축도		김한호 목사		
※ 표는 일어서시는 표입니다				

## 4부 젊은이예배

찬양	청년부 경배와 찬양
기도	고은영 집사
성경봉독	노현영 청년
말씀	박도준 목사

마태복음 25:31-40  
끝에 선 사람들영혼을 깨우는 예배  
CHUNCHEON DONGBU WORSHIP인도 1부 : 진성민 목사  
2부 : 최성구 목사  
3부 : 황수영 목사예배·모임·교인동정  
CHUNCHEON DONGBU COMMUNITY

인도 : 장병섭 장로

[오후 7시]

(제직현신예배)		
목	고린도전서 12:31	다같이
도	215장	다같이
찬		김준현 집사
송	323장	다같이
기		인도자
도		제직연합찬양대
찬	느헤미야 1:1-3	인도자
양		제직연합찬양대
말		윤석호 목사
씀	300장	다같이
찬		김한호 목사
송		
축		
도		

희망은 불타지 않습니다

수요기도회		
[오후 7시]		인도 : 최성구 목사
목	고린도전서 12:31	다같이
도	240장	다같이
찬		정영지 권사
송	260장	다같이
기		인도자
도		인도자
찬	창세기 45:1-5	인도자
양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창세기[45] -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박인숙 전도사	
찬	406장	다같이
송		다같이
주		
기		
도		
문		

2 금요일의 은혜로운 밤(심야기도회)  
매월 첫째주 금요일 오후 8시 대예배실  
3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

어부의 눈  
FISHERMAN STORY춘천 CBS 라디오 강단 (93.7MHz)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35분~10시

'어부의 눈'을 통하여 지난주 설교요약을 전합니다. 목회자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건져 올리기에 '어부의 눈'이란 이름을 정했습니다.

## 주를 향하여

본문: 사무엘하 13:39, 14:1

성 안토니오는 251년경 이집트에서 부유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수도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06년, 그의 명성을 듣고 모여든 제자들과 함께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것이 최초의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입니다. 1,000여 년이 지난 후 네덜란드 헤에로니무스 보쉬(Hieronymus Bosch)가 <성 안토니오의 유혹>이란 그림을 그립니다. 이 시기는 종교개혁이 태동하던 시기로, 작가는 성 안토니오와 같은 사람도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한 인물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영성이 약해지자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심지어 요압이 꾸며내는 말에도 넘어갑니다. 다윗은 분별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13장 39절, 14장 1절에 나오는 '향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 'אל'이라는 전치사로써 '위로'라는 뜻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말하는데, 다윗의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께 향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다의 왕이 될 때도 여호와께 늘 여쭙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웃이 벗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던 다윗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 복음 때문에 죽음 직전에 놓인 스테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을 향해 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천사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얼굴의 헬라어 단어 '프로스포온'이란 말로써 '향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얼굴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